

합천 계남지구 화합의 장 행사 주민 참여 속 성황리 종료

김상준기자 | 승인 2024.10.09 15:50 | 12면

초계면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순항



▲ /합천군

합천군 초계면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계남복합문화센터에서 화합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의장, 장진영 도의원, 김문숙, 이종철, 이태련 합천군의원, 박인식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남복합문화센터 조성, 계남초등학교와 어르신마을관리소 리모델링, 유하천 생태보행로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민 교육 및 동아리 교육 등 지역역량강화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계남복합문화센터는 폐교된 계남초등학교 부지를 정비해 건립되었으며, 초계면 계남지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윤철 군수는 “계남복합문화센터는 군과 농어촌공사, 운영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계남복합문화센터가 화합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초계면이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